

本能과 본성에 基礎한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意義에 대한 小考*
- 자연의학으로서의 가치와 현대병을 중심으로 -

광혜원 한방병원¹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임상중양학교실²
엄석기¹ ** · 최원철²

The Value of Traditional Medicine in East Asia which is based on
the Instinct and Nature

- Focused on the Value of Nature Medicine and Modern Disease -

Eom Seok-ki¹ ** · Choi Won-cheol²

¹Kwanghyewon Medical Foundation

²Dept. of Clinical Traditional Onc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Natural Medicine is a medical system that tries to find the cause and cure of the disease in the nature emphasizing on natural healing power of human body. The most important value of traditional medicine in east Asia lies on the fact that this medicine is a medical culture and natural medicine that was selected by instinct and human nature reflecting the best possible remedy by the wisdom of evolution, and views the living phenomenon based on relation and circulation. This medicine is a natural medicine that tries to recover and promote the natural healing power by vitality and is a system that cumulates various empirical information about unique and complicated life phenomenon as a legacy of evolution in the body and the disease. The understanding of variation and adaptation of human species should be based on thorough knowledge of origin, instinct and nature of human as well as knowledge of survival and adaptation of human and environment based on evolution. And through this insight,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modern diseases should be developed. In this regards, traditional medicine in east Asia should be highlighted again as a study on adaptation and harmony of penetrating the cultural history of mind which has led the history of biological body and change of society and culture, and the repository of practical wisdom and knowledge.

Key Words : Instinct, Human Nature, Natural Medicine, Darwinian Medicine, Ecological medicine, Traditional Medicine in East Asia, Modern disease

I. 序論

본능(instinct)¹⁾이란 살아남음 즉 생존과 번식에 대한 가장 중요한 행위를 우선적으로 책임지는 근원이며 본성(human Nature)²⁾은 사람이 본디부터 가진 성질을 의미하는데, 모두 인간 종의 몸과 마음이 오랜 진화의 역사 속에서 근본적으로 지니게 된 것이다. 본능과 본성은 자연의학의 기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자연의학은 질병의 원인과 치료를 자연현상에서 찾았으며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중시한 의학으로 히포크라테스 의학과 동아시아 전통의학이 대표적이다.

특히 동아시아 전통의학은 본능과 본성에 의해 형성된 천연물에 의한 자연치료의 구체적 경험들이 경험현상이 되었으며 이것이 추상적 사유와 구체적 실증의 체계 속에서 구체적 지식체계로 형성된 것이며, 훈고학적 고증의 방법과 경험과학적 실증의 방법을 통하여 시대별 검증과 보완 및 재평가 등을 받으면서 발전한 것이다.³⁾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다양한 현대

화 연구에 의해 그 전통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생의 학계의 시각에 기초한 현대화 모색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동아시아 전통의학계가 경험하게 하고 있다. 즉, 구조와 기능에 대한 생물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파악하며 구조와 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치료라는 관점에서 대부분의 현대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전통의학의 지식체계를 생의 학계의 학문적 전통으로만 해석한 것으로써,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가치와 정수를 제대로 조명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한 정통성과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사태를 경험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현대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암에 대한 진료와 연구 과정의 경험을 토대로, 암 등의 현대병에 대한 연구가 동아시아 전통의학 지식체계를 재평가 하며 연구하는 것에 중요한 하나의 출발점이 있으며, 이는 본능과 본성에 기원한 자연의학의 전통을 본격적으로 조명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가설(hypothesis, 假說)을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가설에 기초를 둔 연구가 기존의 동아시아 전통의학 현대화 연구의 여러 문제점을 평가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은 동서양의 전통사회 형성과 발전 및 근대화 과정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학문 전통과 종교 및 과학의 발달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수반하여야 하며, 특히 기독교 사상 및 자본주의 그리고 최근의 근현대 물리학과 진화론의 발달 등에 관한 주의 깊은 연구를 통하여 주장될 때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가설에 입각한 고찰이라는 명백한 한계를 지니므로, 다분히 비체계적이며 실험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⁴⁾

* 본 연구는 의료법인 광혜원 의료재단의 2009년도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업석기.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 5동 24번지 광혜원 한방병원.

E-mail: sku0808@hanmail.net Tel: 02-440-7277.

접수일(2010년 2월 18일), 수정일(2010년 3월 15일), 게재확정일(2010년 3월 18일)

1) 본능.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263112>. 2010.02.15. “본능[本能, instinct]이란 미리 예측할 수 있고 비교적 고정된 행동양식으로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성질을 말한다. 본능적 행동은 어떤 동물이나 종(種)이 조상에게 물려받은 적응수단으로서, 그 동물이나 종의 생존에 이바지하며 싸움이나 성적(性的) 행위에 가장 뚜렷이 나타난다. 본능은 크게 ‘개체 유지 본능’과 ‘종족 유지 본능’으로 나눌 수 있으며, 또 본능은 이를 나타내는 형태에 따라 섭식·모성·생식·방어·귀소 본능 등의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본능이 환경에 적응하여 반응하는 것을 본능 행동이라고 하는데, 동물은 각각 그 종 특유의 행동, 즉 유전적으로 이어받은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어서 독자적인 방법으로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

2) 본성. <http://krdic.daum.net/dickr/contents.do?offset=A017556600&query1=A017556600#A017556600>. 2010.02.15. “본성(本性)은 사람이 본디부터 가진 성질” 동서양과 그리고 고금을 막론하고 윤리의식, 자아, 감정과 이성, 생각 등에 관한 탐구는 결국 인간이 본디부터 가진 성질 즉 본성에 대한 탐구와 불가분의 관계에 항상 놓여 있었다.

3) 업석기, 김세현, 최원철. A History of Research Methodology in Traditional Medical Systems of East Asia -Turning Tradition Into Modern : BC 12C~AD 21C. The 3rd International Symposium of East-West Medicine for Cancer Therapy. 2008. 포스터 발표.

4) 본 원고가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투고규정상의 ‘한의학 원전과 관련된 이론 및 문헌연구’의 범주에 과연 해당하는가에 대한 저자 스스로의 고민에도 불구하고, 첫째로는 저자가 본 원고에서 주장하는 가설이 한의학의 정체성과 연관되며 특히 한의학 문헌연구의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는 생각과 둘째로는 가설에 입각한 비체계적 고찰이라는 연구 방법론의 한계로 인한 저자의 원치 않는 오류를

저자는 이러한 가설에 대한 연구의 시작으로 본능과 본성에 의한 선택과 적응의 결과로서의 의학의 기원, 자연의학 전통의 가치, 진화 갈등 관점에서의 현대병의 의미, 자연의학에 기초한 현대병에 대한 접근, 진화의학 및 생태의학으로서의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의의 등을 일차적으로 고찰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II. 本論 및 考察

1. 의학의 기원-본능과 본성의 선택

의학이란 건강의 유지와 질병의 예방·경감·치료에 관한 과학을 의미한다. 의학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경험의료로서 존재하고, 일반과학의 진보와 함께 독자성을 가진 과학으로서 발전하여, '인체의 연구와 질병의 치료예방을 연구하는 학문'이 되었다. 오늘날에는 의학의 정의가 '인간을 생리적·심리적·사회적으로도 능동적이 되게 하고, 가능한 한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연구'라고 하는 기능적·사회적 입장으로 변화하고 있다.⁵⁾ 이러한 의학은 살아 있는 유기체의 기초적인 측면들에 대한 이해의 진전을 통하여 발전을 지속해 왔다. 의학의 기원에 관한 다양한 견해⁶⁾ 중에서도, 대부분의 의학사 혹은 과학사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의학이 자연에서 기원하였다는 견해이다. 인류는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자연에서 찾았으며, 자연의 동식물과 광물 등을 치료 약물로 사용하면서 의학의 발달을 도모하였다. 그것이 민간요법 전승의학 혹은 전통의학의 형태로, 세대를 뛰어넘거나 세대와 세대의 전수를 통하여 의학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전통이 좀 더 발전된 의학 체계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인류가 문자를 사용하여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가능해진 시기 이후이다. 동양의 경우 기원 전후로 적어도 300-400여종의 천연물 약

재를 전문적인 치료약재로 사용한 기록⁷⁾들이 있으며, 서양의 경우 기원전 400년 무렵의 히프크라테스에 의하여 적어도 400여종의 천연식물이 약재로 사용한 기록 등이 있다. 이러한 천연약재를 사용한 인류의 질병 치료의 노력은 적어도 근대에 서양의학계가 과학적 의학을 주창하기 이전까지는 인류 의학의 역사 그 자체였다. 근세이전 인류의 모든 의학경험은 너무나도 철저히 자연적이었던 것이다.

중국의 고대의학의 기원에 관한 설명 중에서 약물 치료의 기원에 관한 복희[伏羲, Fu His, 태호, 포희]와 신농[神農, Shen Nung, 염제]에 대한 아래의 기록은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준다.

『帝王世紀』에서 “伏羲氏 … 劃八卦 … 乃嘗味百藥而制九鍼 以拯夭枉焉”라 하였고, 또 『路史』에는 “伏羲嘗草制砭”이라는 기재가 있다. 또 神農氏에 관하여『淮南子·修務訓』에서 “神農乃教民播種五穀 … 嘗百草之滋味 … 當此之時 一日而遇七十毒”이라 하였고, 또 『史記·補三皇本紀』에서 “神農氏 以赭鞭鞭草木 始賞百草 始有醫藥”이라 하였다.⁸⁾

첫째, 천연약물 치료의 기원은 농업과 목축업의 기원⁹⁾과 동일한 생물학적 진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인류학자들은 원시시대의 식량문제는 공동 사냥의 형태를 통한 육류의 섭취를 통한 해결이 먼저 발생하였으며, 식물경작으로 통한 농업과 야생짐승의 길들이기를 통한 소·말·양·돼지·닭 등의 가축을 기르는 목축의 형태가 병행하며

7) 詩經에 약 50여종의 약재 관련 기록이, 山海經에 약 100여종의 약재 관련 기록이, 屈原(楚, 340-278)이 저술한 離騷에 초목 55종이 기록되어 있으며, 馬王堆帛書 중의 治百病方에는 약 100여종의 약재가 五十二病方에는 若 247종의 약재가 수록되어 있고, 神農本草經(BC 104-東漢)에는 3,694 종의 약재가 수록되어 있다.

8) 홍원식 편저. 중국의학사.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4. p.12.

9) 인간 종은 생물학적 진화 과정을 통하여 농업과 목축을 선택하였는데, 보통 인간 종의 농업 목축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신석기시대(1만~1만 3,000년 전)부터 라고 하며, 정착농업의 발생은 대개 BC 6000년 전후라고 본다. 우리가 특히 농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일부의 목축민족을 제외하고는 농업은 사회의 기본적인 생산적 토대였기 때문이다.

찾기 위해서는 원전학 전문가들의 엄밀한 비평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 등으로 인하여 이 원고를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에 투고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5) 의학.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17a2816a>. 2010.02.15.

6) 原始本能起源說 巫起源說 聖人起源說 등이 있다.

발전한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농업과 목축의 발달은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에 있어서 인간 종의 생존과 번식의 안정성¹⁰⁾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의학의 기원 또한 농업과 목축과 같이 인간 종족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창의적인 활동의 결과 중의 하나이며, 천연약물을 이용한 치료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다.¹¹⁾ 둘째, 천연약물 치료의 기원은 인간 종이 몸에 간직하고 있던 생물학적 진화의 기억을 본능적으로 활용한 것이며, 이는 동식물류의 독성에 대한 적응¹²⁾이 이 시기 인간 종에게 있어서는 생존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반증한다는 사실이다. 인간이 지금 지니고 있는 유전적 정보는 적게는 2-3천년 길게는 2-3만년 이상의 진화에 따른 결과이며, 특히 음식물로 사용되는 동식물에 대한 유전적 정보 또한 적어도

2-3천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다. 새로운 것이 지니는 독성에 대하여 인간 종의 면역계가 자연 진화하는데 최소한 2-3백년 이상의 적응기간이 필요하다¹³⁾. 농업과 목축업이 인간 종의 문화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식생활이 동물보다는 식물에 의존하는 음식문화의 일대 혁신이 나타났으며, 이 과정 속에서 농축산물에 대한 인간 종의 적응이 요구되었으며 진행되었다. 농축산물에 대하여 인간 종은 적어도 수십만 년 동안에 동식물의 위험한 방어물질들에 대한 면역성을 증가시키거나 주요 구성인자들을 생명에너지로 변화하는 인체 내 기전을 적응시키면서 진화하여 온 것이다.¹⁴⁾ 그리고 이러한 진화의 과정에서 동식물류의 독성에 대한 생물학적 적응의 여러 문제들을 문화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이 시기 인간 종이 당면하였던 가장 중요한 문제였음을 천연약물 치료의 기원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인간이 천연약물을 인식하는 실천행위가 생물학적인 ‘맛보는 것[맛보기, 미각]’에서 출발하였다는 사실은 진화의 기억을 본능적으로 활용하며 천연약물의 선택을 이루어냈으며¹⁵⁾, 이를 통하여 농축산물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한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은 본능과 본성¹⁶⁾에 기초한 경험과 선별, 경험

10) 생물학적 진화에서 알게 된 자연의 불완전함과 우연성의 본능적 불안을 극복하기 위하여, 비록 그것이 몸에 대한 자연선택의 결과이긴 하지만 마음의 진화 즉 지능과 의식의 발달이 나타났으며, 이것은 인간 종으로 하여금 언어를 사용하게 하였으며 도구를 사용하게 하였고 집단 사회생활을 하게 하였으며 학습을 통한 지식전수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예술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11) 김기욱 외 15인. 강좌 중국의학사. 서울. 대성의학사. 2006. pp.26-27. “문명화 되지 않은 많은 민족이나 부족들이 주변 동식물들을 저마다의 방법으로 의학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줄 안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성인의 유무와 무관하게 의학적 지식의 축적은 어느 시대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힘들다. 본초 특성에 대한 인간들의 지식은 생산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계속되었다. 농업기술의 발전, 수렵과 목축의 발달과 육류 섭취, 돌과 금속을 이용한 도구의 제작 등은 식물 동물 광물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켰다. 농업 기술이 풍부해지면서 인간은 식물의 性味와 效能에 대한 지식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원시 인류가 식물을 약으로 이용하면서 그 시작은 하나의 약을 위주로 하거나 몇몇 약들을 합하여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수렵으로 여러 동물의 살코기 지방 내장 골수 등을 식용으로 섭취함으로써 동물들이 인간의 영향상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어떤 독 부작용을 초래하는지를 인식하게 되었다. 게다가 동물의 사체를 관찰하면서 해부학적 지식도 습득하게 되었다. 목축을 시작하면서 사육하는 동물의 중독증상과 인간의 질병을 통해 많은 경험적 지식들이 축적되었다.”

12) Paul R. Ehrlich 지음, 전방욱 옮김. 인간의 본성들. 서울. 이마고. 2008. pp.70-71. “영장류가 진화한, 적어도 수백만 세대 동안에 식물의 위험한 방어물질에 대한 저항성은 진화했다. --- 사람들은 식물의 잔류독소(선택에 의해 작물로부터 제거되지 않은 독소)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반응을 진화시킨 것 같다.”

13) Edward O. Wilson 지음, 최재천, 김길원 옮김. 우리는 지금도 야생을 산다. 서울. 바다출판사. 2005. p.112. “안정적인 선택압 하에서는 불과 10세대만 거치면 하나의 유전자자가 다른 유전자로 대체된다. 이것은 인간의 경우 그저 2-3백년이 걸리는 일이다. 하나의 유전자가 행동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데, 감수성의 역치 수준에 영향을 미칠 때는 특히 그렇다. 그러나 새롭고 복잡한 행동 유형에는 아마 유전자가 관련되어 훨씬 오랜 시간을 두고 연합한다. 아마도 100세대 또는 1,000세대까지 걸릴 수도 있다.”

14) Edward O. Wilson 지음, 최재천, 김길원 옮김. 우리는 지금도 야생을 산다. 서울. 바다출판사. 2005. p.118. “문화는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창조되고 다듬어지는 반면 생물학적 과정은 문화적인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써 함께 변화를 일으킨다.”

15) 기록 중에 있는 ‘嘗百草’, ‘嘗味草木’, ‘嘗味百藥’ 등의 항목은 인간이 약물을 인식하는 실천과정을 생생하게 형상·개괄한 것이다.

16) 생물학적 진화는 본능에 가깝고 문화적 진화는 본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천연약물 치료의 기원은 생물학적 진화의 선택압에 의한 마음의 진화 즉 본성에 의한 것이며 마음 진화의 선택압에 의한 치료방법의 개발은 생물학적 진화의 기억을 즉 본능을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의 반복과 재현, 감성적 지식의 생성과 선별 그리고 이성적 체계화를 거치면서 천연약물 지식이 형성되고 전수된 것임을 설명하여 준다.¹⁷⁾ 인간 종이 진화의 기억인 본능과 본성을 본격적으로 인간을 위해 선택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 중의 하나가 천연약물을 이용한 치료행위 즉 원시의학으로써 나타난 것이다.¹⁸⁾

2. 자연의학

2.1 자연의학이란?

자연의학은 질병의 원인과 치료를 자연현상에서 찾았으며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는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중시한 의학이다. 히포크라테스 의학과 동아시아 전통 의학을 대표적인 자연의학체계로 볼 수 있다. Erwin Heinz Ackerknecht는 1982년에 발표한 'A Short history of medicine'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질병의 원인과 치료를 초월적 존재가 아닌 공기, 바람, 추위, 더위와 같은 자연현상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히포크라테스 의학은 '자연의학'이다.¹⁹⁾

히포크라테스 의학이 추구한 것은 자연적 치유능

17) 이는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 종의 생물학적 진화의 과정은 대부분 적어도 10만 년 전에서 1만 년 전 사이에 형성된 것이며 이 과정동안의 생물학적 진화의 속도와 문화적 진화의 속도는 서로 엇비슷하여 서로가 어느 정도의 조화를 이루면서 진화를 이룩하였으나, 대략 8천년전후의 농사를 짓기 시작한 때부터 문화적 진화가 생물학적 진화에 압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과도 부합한다. 또한, 인류의 90% 이상이 농업에 기초한 생활을 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은 현생 인류가 기억하고 있는 음식에 대한 유전적 정보가 대부분 농경문화에 기초한 것이라는 사실과도 부합된다.

18)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창조론에 기초를 둔 학자들은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본능과 본성에 관련한 문제를 논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히 기독교 창조론에 기초한 기존의 다양한 견해와의 심각한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가 항상 문제가 되어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장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또한 필요할 것이다.

19) E. H. Ackerknecht. A Short history of medicin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2. p.61.

력의 회복과 증진이었으며 치료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자연현상에 존재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식사 운동과 같은 새로운 식이의학(食餌醫學, dietary medicine)'을 개척했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²⁰⁾ 동아시아 전통의학 천연약물치료의 기원에 대한 앞의 설명과 비교할 때, 동서양 의학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고대의학과 히포크라테스 의학은 모두 본능과 본성 그리고 자연이 상호영향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자 그대로 자연치료 자연의학이 의학의 출발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동질성에 대하여 반딧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인간의 건강과 질병을 인체 내에서 고립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인간을 둘러싼 자연적, 환경적 요인과 활발히 교감하는 열린 체제 속에서 인식했다는 점에서 두 의학 모두 생태학적 건강관의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²¹⁾

이러한 설명은 치료의 기원이 본능과 본성에 의한 선택에서 출발했다는 사실과도 부합한다. 모든 문화의 출발이 그러하듯이 의학 또한 생물학적 진화의 선택압에 의한 출발이었던 것이다. 역사속의 바로 그 시간대에서의 적응 형태에는 보편적 유사성이 존재하는데, 인류는 그 시간에 자연 의학을 선택한 것이며, 그것이 다양한 형태로 여러 민족과 문화권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18세기까지 동서양 의학계의 자연의학 전통은 정통성 있게 유지되었었다.

2.2 자연의학의 쇠퇴

의학의 학문적 전통이 1800년대 이후에 정립되었다는 주장은 현대의학의 학문적 기초의 성립에 근거

20) 예방측면의 배설 절개 소작과 같은 전통적 치료의학 즉 호메로스 시대의 약리학적 의학(Pharmacological medicine)이나 아스클레피오스의 치료의학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점이다.

21) 반딧진. 히포크라테스 의학과 황제내경 의학의 건강사상에 관한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박사학위논문. 2004. p. iv.

한 주장일 뿐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해부학과 생리학 분야의 발전과 이를 토대로 한 18세기의 근대적 병리학이 출현을 계기로 학문적 전통이 정립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의학의 특징을 개념화한 용어가 생의학(Biomedicine)인데, 이태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생의학은 신체의 구조와 기능, 이들의 정상과 비정상 을 물리학 화학 생물학적 이해에 바탕 두고 있다. 신체는 상호의존 관계에 있는 부분의 전체로 보고, 각 부분이 수행되어야 할 역할과 그리고 각 부분의 총체적 작동의 기능수행에 의해서 생존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건강이상은 이들 구조 내지는 기능이상(abnormal)이 전체되는 환원적 개념(reductionist conception)에 근거하고 있다.²²⁾

1800년대 이후에 정립된 생의학의 전통은 기본적으로 생체의 구조와 총체적 기능의 이상 유무에 초점이 있으며, 구조와 기능에 대한 생물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파악하고 치료한다. 인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자연과의 상호관계는 주된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이는 자연치유력의 회복과 증진이 치료라는 생각에서 구조와 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치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즉, 생의학시대 이전의 치료가 자연치유력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한 것이었다면, 생의학시대의 치료는 인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인위적인 조절을 통한 치료를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의학의 전통 속에서 자연의학에 기초한 전통적인 의학 지식의 가치는 폄하되거나 사장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전통적인 의학지식이 간직한 인류경험에 기초한 수많은 지혜는 생의학의 관점에서는 단지 그럴 수도 있는 것 일뿐이며, 그 지식의 기초가 분석적이며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²³⁾로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나게 된다. 비록 생의학에서 사용하는 많은 약물들이 전통적인 치료경험 혹은 치료지식

과 천연자원에 기초한 과학적 연구를 통하여 발전시킨 것일지라도, 생의학자들에게 있어서 전통지식은 단지 그럴 수도 있는 우연한 혹은 알 수 없는 것일 뿐이다. 혹 과격한 과학지상주의의 의과학자들은 모든 전통의학은 미신일 뿐이라고도 한다.²⁴⁾

2.3 자연의학의 재평가 - 다양성과 독특성

의학과 자연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히포크라테스의 해석과 인간의 몸은 건강과 질병에 있어서 객체인 동시에 주체라는 인식은 의학이 경험과학으로서의 의과학 뿐만 아니라 철학으로서의 의철학으로 구성되어야 할 학문임을 시사한다.²⁵⁾ 즉, 인간과 자연 및 건강과 질병의 관계를 철학으로서 그리고 경험과학으로서 동시에 고민하고 성찰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자연의학 전통의 가치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함을 요구한다.

서로 다른 의학과 의술의 방식을 문화적 깊이와 역사적 경험 속에서 파악하는 의료인류학 분야의 학자들은 인류가 최근 경험하게 된 생의학의 보편적 지위에 대하여 불편한 시선을 표현하고 있다. 의료는 문화로써 다양성의 측면이 반영되어야만 하며 이러한 시각에서 과학적 생의학의 보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²⁶⁾ 생의학이 누리고 있는 세계적 보편의학²⁷⁾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보편성

24) 의학이 자연과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기초해야 한다는 단순한 명제에만 우리가 충실해도 그러한 의과학자들의 무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25) 근현대 보편의학은 질병을 자연으로부터 독립시키며 정신으로부터 이분화하여 의과학의 지식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질병과 건강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의철학의 영역을 축소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하였다. 현대에 이르러 의철학에 대한 그리고 인문의학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는 사실은 근현대 의과학의 질병에 대한 관점이 부분적으로 수정이 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근 300여년 만에 질병과 건강에 있어서의 주체와 개체로서의 인간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26) Arthur Kleinman. What Is Specific to Western Medicine?. W. F. Bynum, Roy Porter. Companion Encyclopedia of the History of Medicine(Vol. 1). London. Routledge. 1993. p.15-23.

27) 인류가 의료문화 혹은 의학에 있어서 전 세계적 보편성을 지니게 된 것은 역사시대 이후 최근 100-200년간 사이에

22) 이태준. 생의학(Biomedicine)의 의과학적 고찰과 이 의학 모델의 한계성 및 문제점. 의과학. 1993. 2(1). p.1.

23) 생의학자들의 입장에서 치명적인 이유이지만, 전통의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현대의 과학적 지식이 아니거나 혹은 그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다는 단지 그 이유일 뿐이다.

과 유일성으로서의 생의학이 인간 종의 다양성과 독특성으로 인한 여러 문제에 대처하는데 한계를 지니므로 다양성과 고유성을 간직하고 있는 각 문화권역의 전통의학과 의료문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연결된다.²⁸⁾ 즉 인간 종의 독특성과 복잡한 생명현상에 대한 수많은 경험적 정보를 간직하고 있으며, 몸 그리고 질병의 진화 역사에 대한 인간의 독특성을 발현한 유산으로써의 자연의학 전통의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화하는 몸의 역사성으로서의 인간 종의 독특성과 유기체 복잡성으로서의 생명현상에 대한 이해가 진전된다면 이는 곧 개체가 겪는 다양한 질병에 대한 진보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큰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며, 이는 몸의 역사성과 같이 한 전통의학의 경험적 지식 체계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3. 진화와 현대병

3.1 진화의 갈등과 질병

생물학적 진화와 문화적 진화가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즉 진화의 갈등을 겪으면서 진화의 역사가 이끌어 왔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론이 없는

서 최초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리스 로마의학에 연원을 두는 17세기 이후 유럽에서 탄생한 실험의학은 1800-1850년의 근대의학의 탄생과 1870-1900년 사이의 근대의학의 승리라는 상징적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사회의 형성과 그 맥을 같이하며 해부학 생리학 세포학 조직학 병리학 미생물학 등에 기초하며 실험연구와 공공위생을 중시하는 근대의학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근대의학은 19세기 제국의 식민지배 정책의 핵심전략 중의 하나로서 기독교와 더불어 전 세계의 각 문화권에 전파되기 시작하였으며, 1940년대 이후에는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제약 산업과 자본가들에 의하여 전 세계 보편의학으로서의 확고부동한 지위를 형성하게 된다. 보편의학으로서의 해게모니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데, 하나는 제도권의학으로서의 의료 권력과 다른 하나는 의료지식의 독점에 의한 지식권력의 측면에서 이다. 그리고 전 세계의 제도권의학과 의료지식이 현대의 보편의학 즉 생의학의 권력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8) 인류학이 민족·제도·종교 또는 관습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를 배제한 상태에서 인간 인간의 활동 인간의 생산물에 대해 가능한 한 직접 관찰을 한다는 점과 또한 이런 모든 연구 결과를 인간에 관한 총체적인 기록의 일부로 볼 뿐 아니라, 인류의 생물학적 문화적인 발전과 관련된 복합적인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 가치가 있다.

것 같다. 인간 종이 도구를 사용하고 불을 사용하며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집단생활을 하기 시작한 대략 20-25만년 전후 이전에는 생물학적 진화가 문화적 진화에 선택압으로 작용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이후로 농업이 시작된 대략 1만 년 전까지를 폭넓게 생물학적 진화와 문화적 진화가 상호 조화롭게 작용했던 시기로, 그리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문화적 진화가 생물학적 진화에 선택압으로 작용하던 시기로 구별하여 생각하더라도, 모든 시기에 걸쳐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구별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음의 두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첫째 시기는 현생 인류의 기원인 호모사피엔스 종이 호모에렉투스와의 경쟁을 이겨내고 유일한 인간 종의 자리를 차지한 시기인 대략 3-4만 년 전 전후의 시기 즉 대략 10만 년 전에서 1만 년 전까지의 기간이다. 생물학적 진화와 문화적 진화가 상호 조화롭게 작용했던 시기로써 이 시기에 호모사피엔스 종은 자연환경의 변화와 인간의 문화발달에 적응하며 유일한 인간 종으로서 살아남는 지혜를 터득하였으며, 이러한 지혜를 토대로 1만 년 전 이후의 문화적 발달을 이끌어 낸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진화의 역사에서 인간 종의 전체적 유전적 변이에 의한 진화가 이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적어도 2-3천년에서 길게는 2-3만년이 걸린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볼 때, 그리고 최근 3만년부터의 지구의 역사에서 폭발적인 선택압으로 작용할 만한 지구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에 기초할 때, 현생 인류의 삶이 적어도 3만 년 전부터의 조상들의 삶과 직접 연결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즉, 현생 인류의 몸과 마음이 지니고 있는 진화 적응의 모든 기억은 적어도 3만 년 전의 넓게는 1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시기는 최근 300여 년간이다. 문화적 진화가 생물학적 진화에 선택압으로 작용하던 시기중의 최근 300여 년간은 문화 발달 자체가 폭발적인 선택압으로 작용한 시기로 특별히 분류해야 한다. 특별히 이러한 두 시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현생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진화의 갈등에 기초한다. 그리고 이러한 진화의 갈등이 첫째시기에 진화하며 적응

한 몸과 마음이 둘째 시기의 급격한 환경과 문화 변화에 대한 적응과 선택의 과정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즉, 석기시대의 몸과 마음이 근현대 문화에 대한 적응과 선택을 겪으면서 당대의 진화 갈등이 나타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당대의 진화 갈등 유형은 최소한 두 가지가 존재한다. 첫째는 문화 발달이 변이의 진화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과정이다. 적어도 300년 이전까지 인간 종이 경험한 문화의 90% 정도는 농경문화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의식주와 관련한 대부분의 생활을 농경 문화산물에 의해 누려왔다. 그러나 최근 300년간의 급격한 산업사회화와 2차 가공 산업의 발달은 의식주의 대부분을 합성화학물로 상징되는 가공 산물에 의한 삶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 종을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생명체에서 자연환경을 개발하며 변화시키는 개발자의 위치로 변모시켰으며, 개발자의 인간 주변에는 자연환경이 아닌 인공적인 환경이 들어서게 하였다. 전기에너지, 화학품, 화학약, 대기오염 등 우리가 호흡하고 영양을 섭취하며 대화를 나누고 잠을 자는 모든 생명 행위의 순간순간에 인간 종은 한번도 진화의 역사에서 경험한 적이 없는 이질적인 것들에 노출된 것이다. 우리 세대가 이러한 이질적인 것에 의한 다양한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 종에게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경험하지 못했던 이질적인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에 대한 변이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첫 번째 진화의 갈등이다. 둘째는 다양한 변이에 대한 선택 과정에서 작용하는 차별적인 적합성의 과정이다. 변이의 생성이 어쩔 수 없는 우연의 과정이라면 새로운 변이의 생존과 번식의 적합성 여부가 시험되는 과정은 우연과 필연의 과정이다. 우연과 필연의 과정은 대부분 결혼 즉 짝짓기와 연관된다. 그리고 개체군 단위의 선택과 과정을 통한 종 단위로의 확산이라는 생물학적 진화의 단계를 거친다. 그러나 각각의 개체군 단위의 문화적 특징에 기초한 짝짓기란 이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환경으로 변화하였다. 전 세계가 하나의 문화권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 시작한 것이다. 민족, 언어, 지역권

에 의하여 일정한 개체군을 형성하던 인간 종의 역사가 최근 수십 년 사이에 민족권과 언어권과 지역권에 관계없이 서로 혼합되는 형태를 띠기 시작한 것이다. 흔히 세계화²⁹⁾라 불리는 이러한 변화는 우연과 필연의 과정에서 문화 언어 지역권에서 행해지던 필연의 요소가 점차 그 가치를 일어가게 하고 있다. 세계화로 인하여 변이에 대한 거의 유일한 문화적 방어기전이 약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 두 번째 진화의 갈등인 것이다.

최근 300년간의 인간 문화의 발달은 인간이 전 세대에 비하여 더 좋은 작업환경 더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인간의 노동력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본가들의 이득을 얼마나 더 풍부하게 하는 것인지의 관점에서는 그리고 인간의 인권이 전 시대에 비하여 몰라보게 개선되었으며 인간다움에 대한 인간 지성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전 시대에 비하여 좋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화학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시각에 회의를 표한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온하고 만족스런 삶의 장기적 효과는 대체로 유익하거나 무해하지만, 이런 이익의 대부분은 그에 못지않은 손해를 갖고 있다. 이익에는 대가가 있기 마련이며,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이익조차도 우리 건강에는 해로울 수 있다. 좋은 예로 낮아진 생애 초기의 사망률을 들 수 있다. 이제는 천연두나 홍수염, 출산 합병증, 사냥시의 사고 등으로 일찍 죽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암이나 심장병 같은 노인성 질병에 의한 사망률은 두세 세대 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그 주된 이유는 이런 질병들에 걸리기 쉬운 연령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비율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³⁰⁾

29) 질병의 전파에 관한 세계화의 위험성은 전 세계적인 수준의 역병 유행이 단지 1-2주내에도 발생한다는 단적인 사실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 2009년 4월 멕시코에서 발생한 신종플루는 발병이 보고된 후 2주 만에 전 세계 20여 개국에 전파되는 위력을 보였으며, 근 1달 만에 전 세계에서 12,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보고되었다.

30) Randolph M. Nesse, George C. Williams 저, 최재천 옮김. 인간은 왜 병에 걸리는가.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6. p.206.

문화 발달로 인하여 인간이 누리는 이득은 또 다른 대가를 요구한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질적인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질적인 것에 대한 문화적 방어 기전이 약해지는 상황은 인간 종에게 다양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할 것이라는 예측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의 당사자가 인간 개체가 되었을 때, 그 양태의 대부분은 질병의 형태로 다가올 것이다.

3.2 최근 300년 무엇이 문제인가?31)

최근 300여년의 인간 문화가 인간 종에게 급격한 진화의 선택압으로 진화의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이 곧 인간 종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서의 최대의 방해자임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다. 또한 표현형의 급격한 변이와 유일한 문화적 방어기전이 약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인간이 가지고 있음을, 그리고 최근 300여 년간의 인간의 문화가 지니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에 있음을 시사한다. 왜 최근 300여년의 문화발전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명확하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최근 300년 이전의 문화와 무엇이 다르며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최근 300년 이전의 문화와 다른 것은 크게 문화의 유형, 진화의 속도, 인간 종의 영역이란 세 가지 측면에서 확연하게 우선 구별된다. 농경문화위주에서 대규모 산업문화위주로 문화의 유형이 변화하였으며, 지구의 생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으로써 진화의 속도에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커다란 선택압이 작용하고 있으며, 민족 언어 지역으로 구별되던 인간 종의 영역 경계가 허물어져 전 세계적인 단일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유형이 바뀐 점은 농산물 위주로 적응되어 있던 우리 몸을 의식주의 전 영역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그리고 인공적인 산업생산물에 노출되게 하였으며, 진화 과정에 대한 커다란 선택압의 작용은 급변하는 변이를 나타나게 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단일 영역의 인간 종은 진화의 단계를 통한 순차적 적응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 종이 지니고 있는 진화의 기억 혹은 진화의 유물이 그 효용성을 발휘할 시간적 여유와 공간적 이로움,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모두 상실케 하는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다른 또 하나는 실제로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의 일이다. 전과 다르다는 것과 그 다름으로 인하여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는 지구의 환경 특히 인간과 환경과의 생태환경 관계를 급격하게 악화시켰으며, 인간 의식주의 대부분을 가공된 것과 인공적인 것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늘 자연적이지 않은 것에 인간 종을 노출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생태환경의 악화와 의식주의 변화로 인한 문제점을 또한 산업발달에 기초한 인공적인 노력으로 다시 조절하려고 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최근의 급격하면서도 다양하며 폭발적인 표현형의 변이를 나타내는 질병이나 혹은 유일한 문화적 방어기전이 약해지는 상황으로 인한 질병의 증가는 진화의 선택압 혹은 진화의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알려 주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다름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주목해야 함을 가르쳐 준다.32)

인간 종이 처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지혜는 다름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진화의 속도를 조절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일 것이다. 즉, 인간 종이 지니고 있는 진화의 기억 혹은 진화의 유물이 그 효용성을 발휘할 시간적 여유와 공간적 이로움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최대한 회복하는 노력을 기울여 시간과 공간 그리고 배경의 이득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다.

31) 이 주제에 대한 설명은 근현대사회의 특징인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발달 그리고 세계화 등의 주제 등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문화의 유형, 진화의 속도, 인간 종의 영역 등의 측면에서 300년 이전의 문화와 다른 점을 논하고, 실제로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가를 개괄적으로 서술하는 것으로 한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최근 300년간의 인간 종의 문화가 지니는 많은 문제점에 대한 한의학자로서의 폭 넓고 심도 깊은 서술이 향후 추가될 것이다.

32) 과연 이러한 다름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인간 종에게 어떠한 영향을 발휘할 것이며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다.

3.3 현대병이란?

질병을 우리가 정상적인 생명기능을 방해하거나 변형시키는 손상이라고 할 때, 이는 한 개체가 주위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그 자신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변화 혹은 식습관의 변화나 미생물 또는 다른 인자들의 침입으로 신체기능 이상이나 성장장애가 초래된 경우를 모두 의미한다고 하겠다. 가공 산업으로의 변화 그리고 탄소에너지 및 전기에너지의 사용 및 인공적이며 화학적인 것의 사용 등은 과연 인간 개체에게 어떠한 영향을 발휘한 것인가? 의식주에 관련한 필수 물품을 인공적으로 대량 생산하면서 특히 합성화학물질의 생산이 자연산물을 대신하는 시대가 도래가 인간 종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인가? Paul R. Ehrlich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난 세기나 2세기 동안에 인간 환경을 바꾼 문화적 진화의 믿을 수 없는 속도는 우리가 새로운 조건에 유전적으로 적응할 만한 변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생물학적 진화에 허락하지 않았다.³³⁾

지구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생물학적 종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최근 2-3백년간의 산업화 사회는 주위 환경과 의식주 생활의 변화에 있어서 전시대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인간 종에게 급속하게 경험하게 하였다. 호모사피엔스 종이 적어도 최근 10만 년 이래 최근 300년전 까지 이룩하였던 농경사회 목축사회를 바탕으로 한 생물학적 문화적 진화의 역사를 벗어나서, 의식주의 대부분을 전기에너지를 사용하여 대량 생산된 합성화학산물에 의존하며 사는 사회로 변화한 것이다. 인간 종이 지구의 역사 이래 경험하였던 그 어떠한 진화의 충격 - 기후변화, 온대기 후 등등 - 보다도 강한 충격을, 인간 스스로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R. Nesse와 G. Williams는 새로운 환경이 주는 변화 가능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33) Paul R. Ehrlich 지음, 전방욱 옮김. 인간의 본성들. 서울. 이마고. 2008. p.462.

새로운 환경은 종종 예전에는 표면화하지 않았던 유전적 급변들과 상호작용하여 표현형에 심한 변이를 일으키며, 그 중 일부는 정상 범위를 벗어난다. --- 이러한 이상 사태는 불안정한 유전자형이 전혀 새로운 환경과 부딪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새로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사회적인 영향들은 어떤 이들에게는 문제를 일으키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전혀 문제되지 않거나 여러 사람들이 각기 지닌 고유한 유전 구성에 따라 사람마다 다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³⁴⁾

적어도 2-3백년 이전의 지구에서 인간 종은 전기 및 합성화학산물을 일상적으로 경험하지 못하였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인간 종이 최근의 문화적 산물에 대하여 전혀 적응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인간 종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나 광범위하면서도 일반적인 변화요인의 급격한 증가가 인간 종에게 어떠한 변화를 나타나게 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³⁵⁾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인간 종은 그러한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당사자로서의 인간 종의 보편적 삶의 모습이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며, 그러한 변화의 모습이 일차적으로는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이다. Paul R. Ehrlich은 한때 적응력이 있었지만 생식수행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줄어들었거나 사라진 구조나 행동을 진화의 유물(evolutionary hang-over)이라고 표현하며, 유전적 진화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물들을 교정할 수 있지만 이 유물이 우리의 것일 때는 그 속도가 처참할 정도로 느리다³⁶⁾고 경고한다. 생물 종이 변화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이러한 상징적인 표현은 사실 너무도 부족한 표현이다. 지금 인간 종이 겪고 있는 변화와 적응의 원인이, 지금까지의 지구의 역사에서 인간 종이 경험해

34) Randolph M. Nesse, George C. Williams 지, 최재천 옮김. 인간은 왜 병에 걸리는가.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6. p.207.

35) 그 변화가 인간 종을 진화시킬지 혹은 퇴화를 이끌어내는 작용을 할지는 진화의 시간에서 볼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다.

36) Paul R. Ehrlich 지음, 전방욱 옮김. 인간의 본성들. 서울. 이마고. 2008. p.67.

보지 못했던 그러나 인간 종이 스스로 감당하도록 만든 것이라는 사실은, 기존의 진화의 역사에서 경험한 그 어떠한 것보다는 강한 진화의 고통을 인간 종에게 요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Paul R. Ehrlich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유전적 진화보다 훨씬 빠른 문화적 진화가 우리들의 환경에 해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때 진화적인 유물을 갖게 된다. --- 사람의 문화적 진화는 새로운 합성 발암 원을 포함하는 무수한 새로운 위해요소를 환경에 도입시켰으며 우리들은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방어반응을 진화시킬 만한 시간이 없었다. 우리들의 지각체계와 방어체계는 그런 위해요소가 없는 세계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있으며, 우리들의 '통상적인' 행동은 진화적 유물이 되고 만다. 실제로 빠르게 파괴되어가는 환경에 직면하여 '평상시처럼 살아'가려는 호모사피엔스의 경향은 무엇보다 큰 유물이라고 할 만하다.³⁷⁾

아마도 현대병은 지금 이 시대의 산업사회가 만들어 낸 수많은 새로운 위해요소 등에 대하여, 인간 종이 변화하며 나타나는 즉 변이와 적응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이상상태로 정의해야 할 것이다.³⁸⁾ 우리가 새롭게 처한 현대 환경 특히 기술과 산업의 고도발달로 인한 산업화와 그로 인한 의식주의 대부분을 전기에너지를 사용하여 대량생산된 합성화합산물에 의존하며 사는 사회의 특성은 인간이 적응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외부자극을 몸에서 겪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탐구를 인류는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현대병이란 이름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R. 네스와 G. 윌리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새롭게 처한 현대 환경이 의학적으로 어떤 함의를 갖는지 대하여는 이제 막 탐구를 시작했을 뿐이다.³⁹⁾

한편, 변이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유전자 질병이나 혹은 다양한 표현형의 변화를 수반하는 질병들에 대하여도 현대병이란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접근해 보아야 할 것이다.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나타나는 표현형의 변이는 유전자의 생존과 번식을 위한 아주 유연한 과정의 결과일 뿐이다. 그러나 유전자의 생존과 번식을 위한 변이가 인간 개체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형태의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유전자는 철저히도 유전자의 생존을 위하여 변이하는 것일 뿐이며, 불행히도 인간 개체는 이러한 유전자의 변화에 의한 표현형의 변화를 전 생애에 걸쳐서 경험하면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진화의 영향을 받는 대다수 질환에 대한 연구가 결국은 유전자 수준으로 까지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인간 개체군이 노력할 수 있는 차별적 적합성이라는 또 하나의 선택의 과정이 존재함을 의미한다.⁴⁰⁾ 즉, 진화와 관련한 다양한 질환에서 개체중심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즉 개체의 삶에 대한 우리의 문화적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영역이 최소한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연선택의 과정에 존재하는 이러한 노력의 영역을 인간이 얼마나 지혜롭게 개척할 수 있는가가 현대병에 대한 도전의 또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다윈의학과 생태의학

세포와 유전자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인간의 몸 그리고 생명현상에 대한 좀 더 진보된 설명과 치료법의 개발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과 이런 믿음에 기초했던 환원주의적 의학의 발달은, 이제 인간은 기계가 아닌 부속품의 집합이 아닌 유기체이며 주변의 모든

37) Paul R. Ehrlich 지음, 전방욱 옮김. 인간의 본성들. 서울. 이마고. 2008. p.69.

38) 진화의 유물(evolutionary hangover)에 대한 생물학적 진화의 과정은 무척 느리며, 최소한 10세대 많게는 100세대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다. 특히 이러한 과정이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리고 기후의 변화까지도 유발할 정도로 광범위하며 급격하게 진행되는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진화의 과정은 더욱 힘들 것이다.

39) Randolph M. Nesse, George C. Williams 지, 최재천 옮김. 인간은 왜 병에 걸리는가.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6. p.223.

40) 이기적 유전자에 의한 어쩔 수 없음이 아닌, 인간 개체의 문화적 진화 노력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또한 존재한다는 것이다.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생명계의 일원이라는 인식의 변화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세포학 유전학 해부학 등에 기초한 환원주의적 의료계의 경향은 너무도 공고하여, 이러한 변화의 흐름 또한 유기적 생명체의 모든 현상을 미시적 이해의 틀에 기초하여 해석하려는 노력 위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1 다윈의학[진화학]

인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생명현상 이 모든 것이 과연 세포와 유전자 수준의 환원주의적 연구를 통하여 모두 설명 가능한 것이란 말인가? 보편적인 기초과학과 의학의 연구들이 적응하며 변화하는 인간의 몸 그리고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보편성의 가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진화론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변화하지 않는 생명체는 없다는 전제하에 이 모든 것에 의문을 제시한다. 인간이 알게 된 보편적 의학의 지식과 경험들이 생존의 적합성을 극대화하며 적응하며 변화해 온 것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다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의 바탕에는 인간의 기원과 본질 본성 등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명현상에 대한 이해의 기초에 인간이란 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인간 종에 대한 진화론적 이해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몸과 생명현상에 대한 해석으로 변화하여 한다는 이러한 견해는 흔히 다윈위학 혹은 진화학이라 불리 운다. 강신익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몸을 기계로 보는 근대의 관점을 거부하고 수천만 년에 이르는 진화의 관점에서 몸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진화학 또는 다윈의학이다. 진화학에서 질병은 몸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고, 진화 적응의 부작용일 뿐 고장 난 몸이 아니다. 진화는 우리 몸속에 수많은 오류를 만들고 또 그것을 수정한다. 질병은 오류를 수정하기 전 몸의 상태다. 그렇지만, 수정의 과정이 완벽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진화는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통해 나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병은 진화의 과정에서 흔히 나타

날 수 있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질병은 정복해야 할 적이 아닌 순간 적응해 나가야 할 조건일 뿐이다.⁴¹⁾

진화론 학자들은 인간의 생명현상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닌 적합한 적응을 통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적합한 적응은 인간의 선택이 아닌 자연계의 의도하지 않은 우연한 결과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우리 몸의 모든 생명현상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수천만 년을 거치면서 변이와 적응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불안정한 것이다. 다윈의학은 이러한 견해에 기초하여 인간이란 종의 질병 또한 이러한 변이와 적응에서 개체가 겪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입덧과 발열이다. Paul R. Ehrlich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람들은 식물의 잔류독소(선택에 의해 작물로부터 제거되지 않은 독소)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반응을 진화시킨 것 같다. 어떤 과학자는 입덧이 매운(자신을 잘 방어하는) 식물성 식품에 대한 반응이라고 주장했다. 아마도 어른이 환경에서 동일한 독소에 노출되는 것보다 성장하고 있는 태아가 어머니의 혈액을 통해서 받게 되는 독소에 훨씬 더 민감할 것이다. 독소에 대한 취약성은 아이들이 싹양배추를 싫어하는 것도 설명해준다.⁴²⁾

이는 임신 기간 중의 입덧이 식물성 식품의 독소에 대한 진화의 기억에서 유래한 양태임을 시사한다. 동서양의 모든 의료계가 입덧 환자에게 입덧은 산모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행위임을 이해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은 그리고 무분별한 약물의 투약에 대하여 경고⁴³⁾하는 이유가, 아마도 그들 스스

41) 강신익. 몸의 역사. 살림지식총서 274. 서울. 살림. 2007. p.92.

42) Paul R. Ehrlich 지음, 전방욱 옮김. 인간의 본성들. 서울. 이마고. 2008. p.71.

43) David Sloan Wilson 저, 김영희, 이민정, 정지영 옮김. 진화론의 유혹(Evolution for Everyone). 서울. 북스토리. 2009. p.126. “의사들은 진화론을 믿는 학식을 갖춘 전문가들이지만 거의 대다수가 자신의 직업과 진화론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들은 임신부의 구역질을 치료할 방법을 찾는 일에만 주된 관심을 쏟는다. 1950년대에 의사들은 입덧 치료제로 수면제인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를 대대적으로 처방했다. 그러나 이 약은

로는 달리 설명할지라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입덧은 진화의 기억이 비록 그 형태가 질병의 양태로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대증 치료의 시각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진화론에 기초한 입덧에 관한 연구는 Margie Profet에 의하여 1992년 「적응하는 마음(adapted Mind)」⁴⁴⁾으로 발표되었다. 그녀의 입덧에 관한 이론은 다음과 같다.

배 속의 태아는 평소 성인 식단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의 맹공을 견딜 능력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추론했다. 만약 태아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면 임신부는 배 속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가 평소 식단에 포함되어 있는 독소에 중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식단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는 의식적인 노력이 아니라 송장벌레가 똥을 발육시키거나 태아가 신진대사 전략에 적응하는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 속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 즉 입덧은 임신부를 힘들게 하고 자라나는 태아로부터 열량을 빼앗아 갈 수도 있지만, 입덧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⁵⁾

Margie Profet은 이러한 그의 견해를 더욱 발전시켜 1995년 『태아보호하기(Protecting Your Baby to Be)』란 책을 저술하여 출간하였다. 진화론에 의한 의학지식의 합리적 재분석을 대중에게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인체의 발열 기능이 감염에 대한 방어로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인식 즉 ‘열은 온도 조절상의 어떤 잘못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정교하게 진화된 메커니즘이 활성화되어 생기는 것⁴⁶⁾’이라는 인식의 확산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질병

의 유무와 임상적 변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판단 근거로서의 고식적인 인식⁴⁷⁾에서 출발한 기존의 해열제 처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반성과 연구⁴⁸⁾를 촉구하고 있다. 이는 환자들에게 언제 열이 이롭고 언제 해로운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증거들에 대한 요구로 까지 나타나고 있다.

식물에 대한 진화 기억으로서의 입덧과 감염에 대한 방어라는 진화 기억으로서의 발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시사하는 바는, 기존의 고식적 지식으로 알고 있는 혹은 최신지견으로 알고 있는 건강과 질병의 양태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지혜가 새롭게 해석되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해석은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인간의 선택을 아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윈의학 혹은 진화의학은 최소한 수십만 년에서 길게는 수십억 년에 이르는 인간의 몸과 지구의 역사에서 알게 된 지식과 지혜로써 우리 인간의 생명현상과 질병을 해석하자는 새로운 시도이다. 그리고 이는 생명의 역사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주장하는 이러한 의견은 본성과 본능에 기초한 자연의학 전통에 대한 새로운 평가의 요구로 연결된다.

4.2 생태의학

최근의 진화 선택압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다름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진화의 속도를 조절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은 인간과 환경간의 관계 그리고 모든 생명체와 환경간의 관계에 대하여 다시 주목하게 한다. 인간을 포함한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와 환경간의 모든 것의 상호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 생태학(Ecology)⁴⁹⁾이다. 생태학은 환경에 적

오히려 전 세계 수천 명의 어린이에게 선천성 기형이라는 비극을 떠안기고 말았다.”

44) 이 논문은 인간 종을 진화론적 시각으로 연구하는 큰 변화를 이끌어 냈다. 그녀는 이 이론으로 1993년 맥아더 재단의 ‘지니어스’상 최연소 수상자가 되었다.

45) David Sloan Wilson 저, 김영희, 이민정, 정지영 옮김. 진화론의 유희(Evolution for Everyone). 서울. 북스토리. 2009. pp.123-124.

46) Randolph M. Nesse & George C. Williams 저, 최재천 옮김. 인간은 왜 병에 걸리는가.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6. p.54.

47) 박경남. 상한 발열에 관한 연구. 익산.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p.1.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열(fever)이란 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상으로 잘 알려져 왔으며 현대의학에서도 여전히 병에 걸렸을 때와 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체온변화가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표가 되고 있다.”

48) 상한론과 온병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49) 생태학.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11s3017b>. 2010.02.15. “인구팽창·식량부족·환경오염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모든 사회적·정치적 문제들이 대부분 생태학적 문제와 연관됨이 분명해졌다. 생태학

응하며 진화한 인간 혹은 생명체 보다는 생태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한 인간 혹은 생명체에 대한 시선을 촉구하고 있다. 즉, 인간과 환경의 상호 작용에 의한 인간의 생존과 적응이 아닌,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한 인간과 환경의 상호 생존과 적응을 바라보자는 것이다.⁵⁰⁾

진화학의 성과가 진화의학으로의 창의적 발전을 바라듯이, 이러한 생태학적 관점은 생태의학⁵¹⁾으로의 발전을 바라고 있다. 생태의학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한 인간과 환경의 상호 생존과 적응이란 관점에서 인간의 건강과 질병 그리고 치료를 이해하자는 것이며, 이는 생태학의 지식과 지혜를 통하여 과거와 확연히 다른 것과 새로운 것에 의한 생태의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의학에 도입하자는 것이다. 다윈의학이 인간 중 중심이었다면 생태의학은 인간 중과 환경을 모두 중시하는 개념인 것이다. 생태의학의 이러한 관점은 천인상응(天人相應)에 기초한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세계관 생명관과 흡사하다. 생태학에서는 인간과 자연환경이 생태적 구성요

소 서로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원리로, 구성요소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로서의 상호의존성과 생태적 과정의 순환적 특성 및 구성요소와 과정간의 협력 (Partnership)⁵²⁾을 중시한다. Fritjof Capra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생태학의 원리들 - 상호의존성, 자원의 순환적 흐름, 협동 그리고 협력 - 은 동일한 조직 패턴의 서로 다른 측면이다. 이것은 생태계가 지속가능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조직하는 방법인 것이다.⁵³⁾

Fritjof Capra의 생태학적 견해는 자연계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살아있는 생명의 연결망 속에서 연결하고 해석하는 개념으로써, 전체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다시 부분을 성찰하는 인식에 기초한다. 이러한 생태학적 원리와 그 인식의 방법론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생명관과 유사하다.

5.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재조명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생명관은 자연과 인간의 연속성 역동성 상호의존성에 근거하여 자연과 인간의 관계 및 건강과 질병의 관계를 사유한 의역동원(醫易同源)⁵⁴⁾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도덕적 생명론인 인(仁)의 의덕(醫德)이나 의론(醫論)을 중시한 유익(儒醫)들에 의한 계승 발전의 역사적 맥락을 통하면서, 인(仁)과 효(孝)의 도덕적 실천 즉 인술(仁術)을 지향한 의유동도(醫儒同道)의 길을 걸어왔다. 우

이런 말은 동물과 그것의 무기 및 유기 환경 사이의 관계에 외콜로지(Oekologie)라는 말을 붙임으로써 독일의 동물학자 E. 헤켈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 말의 어원은 가족, 가정 또는 생활 장소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오이코스(oikos)로 생태학은 생물과 그것의 환경을 다룬다. 환경이라는 말은 주체가 되는 생물 이외에 다른 생물들과 물리적 환경을 포함한다. 개체들 사이, 개체군 사이 및 생물과 그들의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태계가 형성되고 유지된다. 생태학은 생물과 그들의 환경 사이의 상호관계 및 생물 상호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 자연의 경제학, 생태계 생물학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어왔다.”

50) 이러한 점은 곧 생물학과 생태학의 차이로도 연결될 것이다. 진화학이 생물학적 진화와 문화적 진화를 연결하는 접점의 학문이라면, 이러한 접점이 어떻게 모든 환경과 서로 공존하게 되는가를 다루는 학문이 생태학인 것이다.

51) Faith Popcorn, Adam Hanft 저, 인트랜스 번역원 옮김. 미래생활사전(Dictionary of the Future). 서울. 을유문화사. 2008. pp.484-485. “지구 건강과 인간 건강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그리고 발전시키려는) 일종의 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 <유티너 리더(Utne Reader)>가 지적 했듯이, ‘산업 문명이 행한 기본적인 잘못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생각하지 않고 자연과 독립된 존재로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생태의학의 중심 사상은 인간에게 산적한 보건문제를 좀 더 광범위한 양상의 일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생태의학은 극적인 문화의 변화에 말 맞추어 영향력이 큰 하나의 세력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52) Fritjof Capra 저, 김용정, 김동광 옮김. 생명의 그물(The Web of Life). 서울. 범양사. 2001. pp.389-398. <생태학적 소양>을 참고하기 바란다.

53) Fritjof Capra 저, 김용정, 김동광 옮김. 생명의 그물(The Web of Life). 서울. 범양사. 2001. p.395.

54) “역(易)은 하늘(天)의 질서와 인간사회가 만나는 곳을 말한다(주자. 주자어류(朱子語類) 卷 68. ‘易之所謂 卻是說天人相接處’)”고 주자(朱子)는 말하였다.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여 해석하는 그 시작에 주역(周易)이 존재하는 것이다. 주역(周易)은 음·양 세력의 교감작용을 철학법주로 격상시켜 세계 만사만물(萬事萬物)을 통일된 체계로 조성하여 설명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원리는 건강과 질병의 관계에 대한 사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주와 자연과 인간을 관통하는 이치에서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연결을 설명하는 원리에서 출발하여, 하늘의 이치를 실천하는 도덕적 삶 선한 삶의 구현 그리고 이러한 삶에 있어서의 의학(醫學)과 의사(醫者)의 도덕적 사회적 역할과 실천에 관한 일관된 고민이 동아시아 전통의학에 담겨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적 기초와 역사적 맥락은 일체의 존재가 유기체적인 기에서 출발한 것이며 정지된 것이 아니며 성장과 순환의 동태과정(動態過程)이 끊임없이 유지되는 것이 생명이며 변화는 모두 음양이라는 기의 작용에 의해 관통되며 모든 생성과 변화의 과정은 생명의 유행(流行) 또는 생생(生生)의 과정이며 끊임없이 연속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리고 천인상응(天人相應)의 생명관에 기초한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생성변화론과 기(氣)의 자연관 그리고 도(道)의 본체론으로 구체화되어진 것이다.

이러한 인식방법은 생태학과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특징이 비슷하다. 천인상응론의 자연관은 심층생태학적 사고와 기(氣)의 변화로써의 음양오행에 대한 이해는 관계에 대한 이해로서의 시스템적 사고, 생명현상의 출입과 승강에 대한 이해는 생태계의 순환적 특성, 음양의 조화와 화평의 추구는 협동과 협력을 통한 생태계의 지속성 추구라는 원리와 그 특성이 비슷하다.

천인상응⁵⁵⁾은 인간의 건강과 질병은 모두 천지자연의 영향아래서 이루어진다는 인식이다. 이는 자연과 인간 모두를 포괄하는 우주 본체의 구조와 본질 그리고 변화의 원리를 인본천지(人本天地) 인응천지(人應天地) 인법천지(人法天地)로 파악한 세계관으로써, 인간의 생명현상은 천지의 이치에 근본하며 천의

오기(五氣)와 지(地)의 五味로써 이루어지며, 천지에 상응하여 천지의 청정(淸淨)한 이치에 응하며 사시와 십이월 그리고 하루의 기의 순행에 상응하고 사방의 음양이 치우침이 있는 것을 상응하며, 천지의 이치를 본받아 기후에 따라 기혈이 조절되고 해와 달의 움직임에 따라 또한 기혈이 조절되며 하루의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질병의 경중(輕重)이 또한 조절된다고 인식한 것이다. 최용우(2001)는 동아시아의학에서의 천인상응론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한의학은 황제내경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황제내경에 담겨진 철학사상의 모든 것을 명쾌하게 밝혀내지는 못하였으니 자연과 인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인 천인상응사상도 그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알고자 하면 먼저 자연과 인간 모두를 포괄하는 우주본체의 구조와 본질 그리고 변화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李樾의 ‘易學以後可以言醫也’라고 한 것과 孫眞人の ‘不知易不可以言太醫也’라고 한 것에서 『주역』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⁵⁶⁾

최용우는 천인상응에 대하여 ‘결국 천인상응이란 기일원론(氣一元論)으로 이루어진 세계관으로 천지자연에서 기의 순환에 의하여 만물이 생성하게 되었으니 산물(産物)로서의 인간은 천지자연과 기의 순환구조가 같다는 것이다. 결국 천지자연의 기의 운동변화가 모든 생명변화의 근원인 동시에 생명현상의 발현과 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하는 것이므로 천지자연의 변화원리으로써 인체변화의 원리를 설명하는 철학사상인 것이다.’⁵⁷⁾라고 설명한다. 즉, 천인상응사상은 역(易)에서 기원한 것으로 천지자연의 변화원리으로써 인체변화의 원리를 설명하는 철학사상인 것이다.

이러한 천인상응사상은 21세기의 사상사의 큰 변화중의 하나인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그리고 그 무엇으로부터도 분리시키지 않는 관점’과 유사하다. 이러

55) 이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1) 정윤철, 윤창렬. 醫學上에 나타난 天人相應. 논문집 5(2). 대전.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1997.
 (2) 최용우. 宋明理學과 素問. 周易의 天人相應思想 研究. 서울. 경희대학교. 2000.
 (3) 정윤철. 黃帝內經에 나타난 天人相應에 관한 研究. 대전. 대전대학교. 2001.
 (4) 김도훈. 老子和 黃帝內經의 人間觀과 自然觀의 비교 연구. 서울. 경희대학교. 2002
 (5) 김의정. 黃老思想의 天人相應觀 研究; 黃帝四經, 管子 4篇, 淮南子,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서울. 서강대학교. 2004.

56) 최용우. 宋明理學과 素問, 周易의 天人相應思想 研究. 서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1.
 57) 최용우. 宋明理學과 素問, 周易의 天人相應思想 研究. 서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p.72-73.

한 관점에 대하여 Fritjof Capra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세계를 서로 분리된 부분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전체로 보는 전일론적 세계관(holistic worldview)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생태적'이라는 말을 일반적인 용법보다 훨씬 폭넓고 깊게 사용한다면 생태적 관점(ecological view)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심층생태학적 자각은 모든 현상들의 근본적인 상호의존성을 인식하며, 개인과 사회로 구성되는 우리들이 모두 자연의 순환적 과정들 속에 깊숙이 묻혀있다는(그리고 궁극적으로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 심층생태학은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그리고 그 무엇으로부터도 분리시키지 않는다. 이 견해는 세계를 분리된 사물들의 집적으로 보지 않고, 근본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인 현상들의 연결망(network)으로 본다.⁵⁸⁾

Fritjof Capra의 설명에 근거하면, 현대의 심층 생태학의 생태학적 사고는 인간과 자연을 연속적이며 역동적이고 상호의존성의 동일한 세계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천인상응론의 세계관과 매우 흡사하다. 단지 천인상응이 기(氣)의 운동변화를 통하여 세계를 일관되게 바라본 세계관이며, 심층생태학은 영적이며 종교적인 인식에 바탕⁵⁹⁾ 한다는 것이 분명히 다를 뿐이다. 자연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있어서, 유가와 동아시아 전통의학 그리고 진화학과 생태학의 학문적 가치에 관심을 기울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인간과 자연을 하나의 일관된 세계로 파악하려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일 것이며 이러한 지식체계가 상호 협조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한편 천인상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기(氣)의 운동변화는 동아시아 전통사상과 의학에서는 모두 음양과 오행의 변화로써 설명한다. 음양과 오행은 기본적으로

로 비형식논리의 추상적 사유체계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고대 중국인이 자연을 이해하고 설명한 사유체계의 가장 큰 특징으로, 각 구성요소의 본질적 특징 및 구성요소간의 관계 속성 등을 모두 통합한 추상적 사유의 틀 속에서 일관되게 설명하는 사유체계이다. 이러한 추상적 사유의 틀은 자연과 인간을 동일하게 설명하는 방법론으로써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이치를 설명하는 원리로써의 위치를 지닌다. 음양오행은 이러한 추상적 사유의 틀이며 또한 사유의 과정으로써 즉 생각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도구로써의 역할도 갖는다. 음양오행은 하나의 추상 도구로써 합리적 설명의 방법론으로써 모든 것을 설명하는 원리로써의 측면을 다 함께 지닌 독특한 개념인 것이다. 음양오행론이 각 구성요소의 본질적 특징 및 관계속성을 모두 통합한 사유로써의 특징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기(氣)의 변화에 의한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인가의 관점에서 파악한 것에 있다. 즉 음과 양의 절대적인 독립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 음 속에는 양이 있으며 양 속에는 음이 있고, 양이 지나치면 음으로 변할 수 있으며 음도 지나치면 양으로 변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에서 음양을 사유의 틀로서 이해하고 활용하였으며, 오행도 각각의 오행이 서로 작용하는 관계로써의 역할에서 그 의미와 기능을 설명 하였던 것이다. 음양은 음과 양의 상대적 공존 공생의 세계관이었으며, 오행은 모든 것의 관계 속에서 파악한 본질의 분류인 오행귀류(五行歸類)⁶⁰⁾와 관계의 공통적 규율을 설명한 오행속성(五行屬性)⁶¹⁾의 두 가지 구체적 틀로 설명한 사유체계인 것이다. 이러한 기(氣)의 변화로써의 음양오행 사유체계는 세계에 대한

60) 오행귀류(五行歸類)는 자연과 인간의 구성요소들 중에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대표적인 것들을 오행의 특징에 따라 분류하여 귀속시킨 것으로써, 예를 들어 인간의 오장 중에서 간은 목에 속하며 심은 화에 속하며 비는 토에 속하며 폐는 금에 속하며 신은 수에 속하며, 오미 중에서 신맛은 목에 쓴맛은 화에 단맛은 토에 매운맛은 금에 짠맛은 수에 속한다.

61) 오행속성(五行屬性)은 오행에 귀류된 각 구성요소들이 오행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상대적 속성을 지니며, 오행 간에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이해이다. 이는 오행의 특징 및 오행간의 상생상극 등에 대한 이해이다.

58) Fritjof Capra 저, 김용경, 김동광 옮김. 생명의 그물(The Web of Life). 서울. 범양사. 2001. pp.21-23.

59) Fritjof Capra 저, 김용경, 김동광 옮김. 생명의 그물(The Web of Life). 서울. 범양사. 2001. p.23.

이해를 존재들 간의 상호의존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 시스템적 사고(systems thinking)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시스템적 사고에 대하여 Fritjof Capra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시스템적 관점에서 볼 때, 유기체, 즉 생물 시스템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들은 그 부분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전체의 특성들이다. 이 특성들은 부분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연관성에서 발생한다. 이 시스템이 물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분리되어 고립된 요소들로 나뉠 때, 이러한 특성들은 사라진다. --- 여러 부분의 특성들은 본질적인 특성이 아니라 보다 큰 전체의 맥락 속에서 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시스템적 접근 방식에서 부분의 특성들은 전체의 조직이라는 측면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적 사고는 기본적인 구성 재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조직 원리에 강조점을 둔다. 시스템적 사고는 분석적 사고에 반대된다는 점에서 ‘맥락적(Contextual)’이다.⁶²⁾

이러한 설명은 천인상응의 세계관이 음양오행의 사유체계에 의하여 구체화되었듯이, 심층생태학적 인식이 시스템적 사고방식에 의하여 구체화 된 것임을 보여준다. 부분과 기능에 의한 전체에 대한 설명이 아닌, 모두를 관통하는 관계와 조직에 의한 설명이란 점에서 음양오행과 시스템적 사고는 동일한 특성이 있는 것이다. Fritjof Capra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궁극적으로-양자물리학이 극적으로 입증해 주었듯이-부분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부분이라 부르는 것은 단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의 그물 속에 나타난 하나의 패턴일 뿐이다. 따라서 부분에서 전체로의 전환은 대상에서 관계로(From objects to relationship)의 전환이라고 볼 있다. --- 식별 가능한 패턴들의 경계, 즉 대상들은 부차적인 것이다. 살아있는 세계를 관계의 연결망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은 연결망이라는 측면에서의 사고를 시스템적 사고의 또 하나의 핵심적인 특성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연결망 사고(network thinging)’는 우리의 자연관뿐 아니라

과학지식에 대한 표현방식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⁶³⁾

이러한 대상에서 관계로의 전환과 각 관계간의 연결망 사고는 모든 구조를 그 속에 내재하는 과정들의 표현으로 간주하는 과정사고(process Thinking)인 것이며, 관계간의 속성과 본질을 설명한 음양오행의 사유 체계와 비교할 때 그 사유의 방식에서 비슷하게 보인다.

음양오행의 사유방식이 기본적으로 기(氣)의 변화에 대한 상대적 인식이었다며, 기의 변화가 생명체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에 대한 인식은 출입(出入)과 승강(升降)의 형태로 나타난다. 음양오행론과 더불어 승강론은 자연의 생명체와 인간을 관통하는 설명원리로써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받아들여지는데, 기(氣)의 출입과 승강은 관계와 구조간의 상호 변화와 혹은 관계와 구조의 과정 내에서의 변화의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 내경 오상정대론(五常正大論)에서는 천지(天地)의 변화 즉 자연환경의 변화가 동식물의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기(神機)와 기립(氣立)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根于中者 命曰神機 神去則機息 根于外者 命曰氣立 氣止則化絕⁶⁴⁾

이에 대하여 경악(景岳)은 “사물 중에 내부에 근본하는 것은 神이 주인이 되어 그 知覺運動이 곧 神機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神이 가면 機의 작용도 따라서 그치게 된다. 사물 중에 외부에 근본하는 것은 반드시 外氣를 빌려 성립하므로 그 生長收藏이 氣化에 의하여 성립된다. 그러므로 氣가 그치면 生化작용도 따라서 끊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동물은 神이 가면 곧 죽고 식물은 껍질을 벗겨내면 죽게 되니, 生化의 근본에 따라 동물과 식물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六微旨大論」에 出入작용이 끊기면 神機도 없어지고 升降작용이 그치면 氣立이 위태로워지므로 出

63) Fritjof Capra 저, 김용정, 김동광 옮김. 생명의 그물(The Web of Life). 서울. 범양사. 2001. pp.60-61.

64) 소문연구집성간행위원회. 소문연구집성 제8권. 대전. 금성인쇄사. 2001. p.262.

62) Fritjof Capra 저, 김용정, 김동광 옮김. 생명의 그물(The Web of Life). 서울. 범양사. 2001. pp.48-49.

入작용이 아니면 生長壯老已의 변화가 없고 升降작용이 없으면 生長化收藏의 변화가 없다고 하였으니, 곧 내부와 외부에 근본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根中과 根外가 이와 같다.⁶⁵⁾”라고 하였는데, 이는 천지자연(天地自然)과 생명체가 기(氣)에 의하여 소통되고 있으며, 동물은 특히 기의 출입을 통하여 성장장노이(生長壯老已)의 생명변화가 유지되며, 식물은 특히 기의 승강을 통하여 성장화수장(生長化收藏)의 생명변화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설명은 천지자연의 기가 각각의 생명체에서 발현하는 현상이 결국은 기의 출입과 승강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으로, “천지자연의 기(氣)의 운행과 순환이 없다면 생명현상이 모두 나타날 수 없다”⁶⁶⁾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경의 인식은 비록 물리적으로는 갇힌 구조이지만 에너지로는 열린 구조라는 살아있는 생태계의 순환적 과정에 대한 인식과 흡사하다. Fritjof Capra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생태계는 물질의 흐름에 대해서는 대체로(완전히는 아니지만) 닫혀있으며,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측면에서는 열려 있다는 점에서 개별 생물들과 차이점을 갖는다. 여기에서 에너지 흐름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태양이다. 태양 에너지는 녹색식물의 광합성에 의해 화학 에너지로 변화되어 대부분의 생태적 순환들을 추동시킨다.⁶⁷⁾

한편, 녹색식물의 광합성에 대하여도 또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광합성이라 불리는 이 놀라운 과정에서 태양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변환되어 유기물질 속에 묶이게 되고, 그 반면 산소가 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다른 식물들과 동물들에 의해 호흡과정에서 다시 흡수된다. 녹색식물은 땅에서 얻는 광물질과 햇빛 그리고 공기 중에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를 한데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땅과 하늘을 연결시킨다.⁶⁸⁾

기(氣)의 운행과 순환이 없다면 생명현상이 나타날 수 없다는 설명과 에너지 흐름으로서의 생태적 과정의 순환적 특성에 대한 이해는, 생명현상이 자연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으며 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단지 기(氣)의 변화로 보는 시각과 에너지의 순환으로 보는 시각이 다를 뿐이다.

한편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생명관은 천지자연과 인간 그리고 모든 생명체의 공존공생을 주장한다. 건강에 대한 회복의 염원은 항상 음양의 화평(和平)과 조화(調和)라는 시각으로 표현되며, 질병의 상태는 항상 음양의 편성편쇠(偏盛偏衰)에 의한 것이므로 건강한 상태로의 회복은 음양의 균형을 회복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음양의 균형은 5대 50의 절대균형이 아닌 상대적인 성질의 상호작용에 의한 균형과 안정의 상태를 의미한다.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추구한 균형과 안정의 상태는 프리고진이 설명하는 ‘홀어지는 구조’와 그 이해의 맥락이 비슷한데, Fritjof Capra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65) 소문연구집성간행위원회. 소문연구집성 제8권. 대전. 금성인쇄사. 2001. p.266. “景岳: 物之根於中者是 以神爲之主 而其知覺運動이 卽神機之所發也 故로 神去則機亦隨而息矣라 物之根於外者는 必假外氣以成立 而其生長收藏이 卽氣化之所立也 故로 氣止則化亦隨而絕矣라 所以動物之神去卽死하고 食物之皮剝卽死하니 此其生化之根에 動植之有異也라 六微旨大論에 曰出入廢則神機化滅하고 升降息則氣立孤危 故로 非出入則無以生長壯老已요 非升降則無以生長化收藏이라하니 卽根於中外之謂라 根中根外가 皆如是也라”

66) 소문연구집성간행위원회. 소문연구집성 제8권. 대전. 금성인쇄사. 2001. pp.266-267. “高: 五運在中 故로 根于中者를 命曰神機니 若神去則機息이요 六氣在外 故로 根于外者를 命曰氣立이니 若氣止則化絶이라”

67) Fritjof Capra 저, 김용경, 김동광 옮김. 생명의 그물(The Web of Life). 서울. 범양사. 2001. pp.391-392.

홀어지는 구조에 대한 이해에서 핵심은 그 구조가 평형상태와 거리가 먼 안정된 상태로 스스로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 다시 말하자면, 평형상태에 있는 유기체는 죽은 유기체이다. 살아 있는 유기체(생물)는 평형과는 거리가 먼 상태 속에서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그 상태가 생명의 상태(state of life)이다. 평형과는 거리가 멀지만, 이 상태는 매우 긴 시간의 길이에서 안정적이다. 그 말은, 소용돌이 속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구성요소들은 계속 변화와 흐름을 진행하지만 전체적 동일한 구조가 유

68) Fritjof Capra 저, 김용경, 김동광 옮김. 생명의 그물(The Web of Life). 서울. 범양사. 2001. p.235.

지된다는 뜻이다.⁶⁹⁾

그리고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서로간의 협동과 협력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환경과 인간을 연결선상에서 파악한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인식방법은 심층생태학적 사고 및 관계에 대한 이해로서의 시스템적 사고 그리고 생태계의 순환적 특성, 협동과 협력을 통한 생태계의 지속성 추구라는 생태학의 원리와 그 특성이 비슷하다.⁷⁰⁾ 이러한 점은 자연환경에 적응해온 생물학적 몸의 역사와 사회문화적 변화를 이끌어온 문화적 마음의 역사를 관통시킬 수 있는 적응과 조화의 학문으로써 그리고 실천의 지혜와 지식의 보고로써 다시금 동아시아 전통의학에 주목해야 함을 촉구한다.

6. 한국 한의학계의 현황

6.1 자연의학의 대두

자연과 환경적 요인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자연치유력에 의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을 강조하던 ‘자연의학’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현대에 대하여 20세기 독일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Hans georg gadamer, (1900- 2002)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자신이 자연의 일부이며, 우리 신체가 유기적인 방어시스템으로 우리의 ‘내적’ 평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연’이다. 이것을 생명을 구성하는 기능들 간의 독특한 상호작용으로 볼 수도 있다. 우리는 스스로 자연의 일부가 됨으

로써만 그리고 자연에 의해 유지됨으로서만 자연에 저항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환자와 의사 모두 자연의 역할을 인정하는 데 일치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⁷¹⁾

그는 근대의 서양의학이 현대의 보편의학으로 확대될 정도의 그 뛰어난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학의 출발이 자연에 의한 것이며 자연치유력의 회복과 증진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잃어가고 있음을, 그것이 현대의학이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한계의 원천임을 설명하고 있다.

인간 종의 변이와 적응에 대한 이해가 진화에 기초한 인간의 기원 본성 본질 및 생명현상과 질병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 및 인간과 환경의 상호생존과 적응에 관한 다양한 지식 등에 근거하지 않고 이루어지며, 이를 기초로 현대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방법을 찾는다면 이는 새로운 또 하나의 현대병이 될 가능성이 크다.⁷²⁾

세포와 유전자에 대한 미시적인 해석 그리고 인간이 파악한 다양한 생명계와 물질계의 최소단위의 집합과 조직의 결정체로서의 몸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파악은 기본적으로 최소단위의 함으로서의 몸에 대한 생명현상에 대한 탐구라는 한계를 지닌다. 어떻게 세포가 생겼으며 어떻게 두발로 걸게 되었으며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도구와 언어의 사용이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켰으며 문화의 발전의 어떻게 몸을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몸과 마음의 역사에 대한 탐구는 인류가 최근 300여년에 걸쳐서 이룩한 환원주의적 몸의 탐구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인류에게 제공할 것이다.⁷³⁾ 진화의 역사적 맥락을 통하여 알게 된 그리고 인간과 환경의 상호생존과 적

69) Fritjof Capra 저, 김용경, 김동광 옮김. 생명의 그물(The Web of Life). 서울. 범양사. 2001. pp.238-239.

70) 저자는 이러한 시각 등이 역대 문헌에 대한 훈고학적 연구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 훈고학적 고증 연구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원전학 분야에서 특히 이러한 관심이 나타나기를 그리고 이러한 관심이 역대문헌학의 중요한 의학 이론에 대한 진보한 해석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중요한 의학이론에 대한 진보한 이해가 현대 학문 특히 생태학과 진화학 물리학 등의 다양한 성취 등을 흡수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1) Hans Georg Gadamer 저, 이유선 옮김. 철학자 가다머 현대의학을 말한다(Uber die Verborgenheit der Gesundheit). 서울. 몸과 마음. 2002. p.75.

72) 진화론 학자와 생태학자들이 그들의 지식을 통한 의학의 영역이 확대되고 생명현상과 질병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진전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이러한 문제점의 심각성과 병폐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73) 최소한 최근 300여년의 서양 지성사는 인류가 알게 된 새로운 천문학적 물리학적 지식과 지혜로써 모든 것을 해석하려는 오만의 역사였음을 인정해야 한다.

응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생명현상과 질병을 이해하면서 알게 된 지식과 지혜를 통하여 인간 몸에 대한 그리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의 새로운 진전이 있기를 진화과학자와 생태과학자들은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진화과학과 생태과학계의 제안은 자연의학의 가치를 다시금 조명하게 한다. 즉 인간 종의 본능과 본성에 기원하여 성립하였으며 자연치유력을 중시하였던 그리고 자연의 산물을 이용한 자연치료를 선택하였던 자연의학의 전통적 지식체계가 곧 다윈의학과 생태의학의 접근법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의학 전통의 가장 큰 가치가 인간 종의 독특성과 복잡한 생명현상에 대한 수많은 경험적 정보를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과 현대병 등에 대한 진보한 해결책이 몸의 역사성과 같이 한 자연의학 전통의 경험적 지식체계에 대한 재조명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에 기초한다.⁷⁴⁾

6.2 동아시아 전통의학계의 정체성 혼란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생명관은 적어도 2,000년 이상 특별한 변화가 없이 그 내적 성장을 이루어내면서 동아시아 사회의 주류의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에서 동아시아 전통의학은 제국주의와 종교 그리고 자본의 이익추구에 의해 제도권 의학과 주류의학에서 밀려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20세기 초반까지 진행되었으며, 현대화의 과정에서 그 의료문화로서의 가치에 우선한 정치적 목적 혹은 민족주의의 명목과 전통의 보존과 전수라는 명목 하에 제도권 의학으로 부분적으로 복귀되나, 의료문화에서의 주도권은 상실한 상태였다. 한편 당대의 양자물리학계 진화학계 생물학계 생태학계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연환경과 생명 그리고 인간에 대한 다양한 이해의 진전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생명관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과 요구 속에서 동아시아 전통의학계는 현대화의

74) 최근 서양의학계 일부에서의 히포크라테스 생명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Back to Hippocrates”라는 슬로건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현대의학이 지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자연과학적 접근 노력의 하나일 것이다.

혼란을 경험중이다. 張其成은 『한의학의 원류를 찾다(東方生命花園-易學與中醫)』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서양 과학문화의 강력한 충격을 받고 중의학계는 물론 과학계 및 사회 각계에서 중의학의 과학성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되었다. 이에 젊은 중의학자는 중의학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지고, 늙은 중의학자는 근심과 걱정에 빠지게 되었다. ---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기존 사고의 틀을 깨고 서양 과학문화의 포위를 뚫어 생명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 한의학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다.⁷⁵⁾

張其成의 이러한 설명은 동아시아 전통의학계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다.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정체성 위기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장기성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오류 1 ; 물질구조를 정확히 파악한다면 생명의 비밀을 밝힐 수 있으므로 한의약학은 ‘실질’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발전 방안 1 ; 물질결정론이나 유전자결정론을 극복하고 관계실재와 기능 작용을 중시하여 기능관계와 물질구조를 함께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류 2 ; 공통적이고 객관적인 규율을 찾아내야 생명의 비밀을 밝힐 수 있는데, 한의임상은 재현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고 주관성과 임의성이 너무 강하다.

발전 방안 2 ; 대항성 치료의 속박에서 벗어나 조절을 통한 자연치료를 지향하고 개성과 공통점을 동시에 중시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오류 3 ; 한의학의 의료기술을 제고해야만 한의학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윤리와 도덕은 의료 기술보다 덜 중요하며, 한의학은 인문학적인 색채가 너무 강하므로 응당 이를 버려야 한다.

발전 방안 3 ; 한의학 경전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고 인문교육과 도덕교육을 강화하며 한의사가 서양 의학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덕을 우선으로 하면서

75) 張其成 지음, 정창현, 백유상, 장우창, 정우진 공역. 한의학의 원류를 찾다(東方生命花園-易學與中醫)-역학과 한의학. 서울. 청흥. 2008. p.499.

덕과 술을 모두 중시하고 인문과 과학을 모두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⁷⁶⁾

장기성은 생명에 대한 근본적 인식의 문제와 치료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의학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까지 모든 분야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해야 함을 추구하고 있다.⁷⁷⁾ 이러한 장기성의 시각은 자연의학의 전통과 그 경험적 지식 체계로부터 출발한 새로운 의학의 발달에 있어서, 동아시아 전통의학계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설명하여 준다. 불행이도 한국 한의학계의 현황 또한 이러한 지적에서 크게 벗어남이 없는 것 같다.

6.3 한국 한의학계의 현황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두개의 의학 시스템이 존재한다. 하나는 동아시아 전통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이며 다른 하나는 생의학으로서의 현대의학이다. 이러한 이원적 의학시스템은 의료의 본질과 기원 및 발달을 각 의학의 문화전통과 역사적 경험의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이는 다양한 난치성 질환에 대한 창의적 연구에 있어서 보편의학과 전통의학의 장단점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우수한 환경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은 제도와 지식 등의 체계모니에 관한 다양한 다툼 속에서 논리구조나 추론방식에 있어 전혀 공통점이 없는 이질적인 것으로만 분석⁷⁸⁾되고 홍보되어지며 심지어는 서로를 비방하고 힐난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원적 제도 하에서 이분법적으로 서로를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결과만을 주로 낳고 있다.⁷⁹⁾ 비록 소수의 의료인들

과 지식인들에 의해 두 문화의 조화에 관한 다양한 의견개진과 실천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존하는 두 의료문화의 이러한 배타성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각각의 역사성과 문화성 그리고 과학성의 조화를 통하여 보편적 인류애에 충실한 의학으로의 발전을 바라는 염원은 요원할 뿐인가?

한국에서 동서양 의학의 생명관에 대한 관점이 비교되기 시작한지가 근 150여년⁸⁰⁾이 지났으며, 동서양의학의 장단점을 서로 취할 것을 주장한 일련의 논쟁들이 시작된 지도 근 150여년⁸¹⁾이 되었다. 근 150여년의 역사를 지닌 두 의료문화간의 이러한 갈등에 대하여 정근식(1996)은 1930년대 한의학부흥운동 과정에서 동서의학에 관한 비교 논쟁이 있었으며, 이러한 논쟁은 우리 근현대사의 의료 분쟁과 갈등의 밑바닥에 몸과 건강에 대한 기본적으로 상이한 인식들이 놓여 있고, 전통적 지식에 대한 상이한 평가가 깃들여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한다.⁸²⁾ 이러한 두 의료문화간의 배타적 관계는 의료문화의 보존과 전수 그리고 창의적 발달에의 의무와 책임을 각각의 이해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행해 하는 병폐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의학은 과학적 현대의학에의 접근을 잡종과학화의 방법으로, 생의학은 한의학에의 접근을 보완대체의학으로 수용하는 방법으로, 서로의 영역 외곽에서 맴돌게 하고 있다. 그리고 생의학계는 한의학계의 잡종과학화를 과학성의 문제에서 비판하며, 한의학계는 생의학계의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을 정체성과 전통성 그리고 심지어는 민족성의 문

76) 張其成 지음, 정장현, 백유상, 장우창, 정우진 공역. 한의학의 원류를 찾아(東方生命花園-易學與中醫)-역학과 한의학. 서울. 청홍. 2008. pp.499-506.

77) 중국 중의학계에 대한 관찰에 기초한 장기성의 이러한 주장은 한국 한의학계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78) 엄석기. 한의학 문헌분류에 관한 연구-한국십진분류법 제 4판 중 한의학 부분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pp.92-99.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특징 비교>를 참고하기 바란다.

79) 의료의 대상자인 건강과 질병의 당사자들이 이원적 의료 제도의 장단점에 대하여 느끼고 주장하는 바는 그들 각각의 입장에 의해서 다시 해석되어 활용되어질 뿐이다. 의료 소비자는 없는 의료 공급자의 이해만이 존재하는 의료시장을 형성하게 된 것에는 의료체계모니를 둘러싼 두 집단의 이해다툼 또한 분명히 한 원인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80) 최한기(崔漢綺, 1803-1877)의 『신기천험(身機踐驗)』에 나타나는 서양의학 관점의 인체 설명과 동서양 의학의 비교를 최초의 동서양의학의 비교로 본다.

81) 최한기(崔漢綺, 1803-1877)의 『신기천험(身機踐驗)』에 최초로 나타나며, 1930년대 동서양의학의 비교논쟁을 중간 과정으로 하여, 1970년대 이후 경희대학교에서 진행된 제3의학의 연구로 연결된다.

82) 정근식. 일제하 서양의료체계의 체계모니 형성과 동서의 학논쟁. 사회와 역사. 1996. 50(50). pp.286-287, p.301.

제에서까지 비판한다. 우리나라에서의 두 의료집단 간의 배타적 관계는 아주 단순한 의문을 갖게 한다. 그렇게 서로를 비판하면서, 서로를 또한 수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중성은 무엇이란 말인가? 왜 서로의 의료문화에 대하여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접근한다 말인가? 특히 1990년대 이후의 미국의 주도하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⁸³⁾, 1990년대 이후의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한 서태평양 지역 전통의학의 가치에 대한 재조명과 적극적인 연구⁸⁴⁾ 등은 왜 나타나게 된 것일까? 인간이 근현대에 만든 문화가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해요소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암 당노치매 아토피 알레르기성 천식 등의 현대병 치료에서 생의학계와 전통의학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절실한 새로운 지식과 지혜에 대한 필요성은, 이에 인류의 생존과 안정을 위한 두 의료문화간의 화해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현대 인류가 겪고 있는 다양한 난치성 질환들은, 생의학과 다양한 전통의학 그리고 의료문화 간의 존중과 배움 그리고 이를 통하여 인류를 위한 창의성⁸⁵⁾을 발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즉 생의학과 전통의학의 지식 영역으로서의 학계, 현장으로서의 병원과 연구소 및 의료제도, 그리고 창의적 개인으로서의 의료인 이 세 가지 구성요소 간의 조화를 통한 창의적 해결 방법의 모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⁸⁶⁾

83) Jeffrey D. White. U.S. National Cancer Institute's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CAM) Activities: Emphasis on Traditional Medicine. The 3rd International Symposium of East-West Medicine for Cancer Therapy. 초록집. 2008. pp.3-20.

84) 최승훈. WHO TRM Roles for Cancer Treatment. The 2nd International East-West Symposium. 초록집. 2007.

85) Mihaly Csikszentmihalyi 지음, 노혜숙 옮김. 창의성의 즐거움(Creativity). 서울. 북로드. 2004. p.23. "창의성이란 기존의 영역을 변화시키거나 기존의 영역으로부터 새로운 변형을 만드는 행위나 사고 또는 작품을 말한다" 하며, 이러한 창의성은 기존의 지식체계를 배움으로써 무지를 일깨울 수 있는 영역의 존재와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업적을 인정하고 입증해주는 현장, 그리고 개인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어우러져 빚어내는 상승작용의 결과물인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창의성은 문화를 풍부하게 하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한다."

86) 난치성 질환에 대한 연구 방법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과학

모든 문화와 학문은 인간과 자연의 진화 과정 속에서 공진화하며 공생하여 왔다. 한의학은 근현대 사회와 문화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며 진화할 것인가? 이제 한국 한의학계는 정체성의 회복에서 시작하여 생태안정과 생명현상의 안정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창의적 의학의 발전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동아시아 전통의학 지식체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킨 전통적이며 정통적인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찰과 정립⁸⁷⁾을 통하여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생명관과 질병관 그리고 어떠한 치료법이 있었다.'라는 설명이전에 생명관과 질병관 및 치료법이 어떠한 사유체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인식되었으며 어떠한 실증체계를 통하여 경험과 검증이 되었으며 그것이 또한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체계적 지식으로 형성 발전되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통의학의 형성과 발전을 이끌어낸 사유체계와 실증체계의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 정립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전통의학 현대화의 연구방법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통성 있게 정립하는 것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⁸⁸⁾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천인상응의 생명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질병의 치료에 적용하며, 관계와 순환의 생명인식을 좀 더 구체화하여 진단과 치료에 적용하며, 음양의 조화를 구체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임상수단을 개발하는 것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의 조화를 통한 창의성의 발현을 통하여 이룩할 수 있다. 즉 인류가 이미 경험한 자연을 활용한 안전한 치료이어야 하며 마음의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친숙한 치료이어야 하며 환자의 삶의 질을 우선으로 하는 합리적 선택으로서의 과학적 치료이어야 하는데, 이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과학의 조화를 담아내는 창의적 노력을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다.

87) 유병완, 정현영, 이시형, 조은희, 금경수. 한의학 연구방법론에 관한 연구-보편성과 특수성을 중심으로-. 대한한의학회지. 2008. 21(4). pp.137-139. 관련한 선행연구로 볼 수 있는 논문이다.

88) 저자는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는 '전통한의학 연구방법론의 현대화에 대한 소고-역사적 근거중심의학에 대한 제언'이란 제목으로 별도로 투고하였다.

III. 結論

암 등의 현대병에 대한 연구가 본능과 본성에 기원한 자연의학의 전통을 본격적으로 조명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가설(hypothesis, 假說)에 입각하여, 본능과 본성에 의한 선택과 적응의 결과로서의 의학의 기원, 자연의학 전통의 가치, 진화 갈등 관점에서의 현대병의 의미, 자연의학에 기초한 현대병에 대한 접근, 진화의학 및 생태의학으로서의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의의 등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1. 자연의학은 질병의 원인과 치료를 자연현상에서 찾았으며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는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중시한 의학이다.
2. 자연의학 전통의 가치는 인간 종의 독특성과 복잡한 생명현상에 대한 수많은 경험적 정보를 간직하고 있으며, 몸 그리고 질병의 진화 역사에 대한 인간의 독특성이 발현된 유산이라는 사실이다.
3.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다양한 진화의 갈등은 대략 10만 년 전에서 1만 년 전까지의 시기에 진화하며 적응한 몸과 마음이 최근 300여 년간의 급격한 환경과 문화 변화에 대한 적응과 선택의 과정에서 유발되는 것이다.
4. 경험하지 못했던 이질적인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에 대한 변이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첫 번째 진화의 갈등이며, 세계화로 인하여 변이에 대한 문화적 방어기전이 약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 두 번째 진화의 갈등이다.
5. 진화의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은 진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며, 이것은 인간 종이 지니고 있는 진화의 기억 혹은 진화의 유물이 그 효용성을 발휘할 시간적 여유와 공간적 이로움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최대한 회복하는 노력을 기울여 시간과 공간 그리고 배경의 이득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6. 현대병은 산업사회가 만들어 낸 수많은 새로운 위해요소 등에 대한 인간 종의 변이와 적응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이상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7. 인간 종의 변이와 적응에 대한 이해는 진화에 기초한 인간의 기원 본성 본질 및 생명현상과 질병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 및 인간과 환경의 상호생존과 적응에 관한 다양한 지식 등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현대병에 대한 예방법과 치료방법 등을 찾아야 한다.

8. 진화론 혹은 생태학의 최신 성과를 통한 몸의 역사성과 같이 한 자연의학의 경험적 지식체계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며, 현대병 등에 대한 진보한 해결책은 여기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

9. 동아시아 전통의학 체계의 가장 큰 가치는 생명 진화의 지혜가 선택한 최선의 치료법으로써 본능과 본성이 선택한 그리고 적응한 친숙한 의료문화이었으며, 관계와 순환으로서 생명현상을 탐구했으며 생명체 스스로의 생명력을 중시하며 생명력에 의한 자연치유력의 회복과 증진을 목표로 하였던 자연의학이었으며, 몸 그리고 질병의 진화 역사의 유산으로써 인간 종의 독특성과 복잡한 생명현상에 대한 수많은 경험적 정보를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본 연구의 결론은 가설에 기초한 고찰에 의한 것이라는 명백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저자는 본 연구의 결론에 대한 엄밀한 후속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저자는 동아시아 전통의학 지식체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킨 전통적이며 정통적인 연구방법론에 대한 연구 및 전통 한의학 지식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연구 그리고 새로운 의학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성 또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연구 등에 대한 탐색적 시도를 계속할 계획이다.

參考文獻

<논문>

1. 박경남. 상한 발열에 관한 연구. 익산. 원광대학교 대학원. 1991. p.1.
2. 반덕진. 히포크라테스 의학과 황제내경 의학의 건 강사상에 관한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박사학위논문. 2004. p.iv.
3. 엄석기. 한의학 문헌분류에 관한 연구-한국십진 분류법 제4판 중 한의학 부분을 중심으로-. 원광

-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pp.92 -99.
- 이태준. 생의학(Biomedicine)의 의과학적 고찰과 이 의학모델의 한계성 및 문제점. 의과학. 1993. 2(1). p.1.
 - 정근식. 일제하 서양의료체계의 해체모니 형성과 동서의학논쟁. 사회와 역사. 1996. 50(50). p.301. pp.286-287.
 - 최용우 宋明理學과 素問, 周易의 天人相應思想 研究. 서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1. pp.72-73.

<단행본>

- 장신의. 몸의 역사. 살림지식총서 274. 서울. 살림. 2007. p.92.
- 김기욱 외 15人. 강좌 중국의학사. 서울. 대성의학사. 2006. pp.26-27.
- 소문연구집성간행위원회. 소문연구집성 제8권. 대전. 금성인쇄사. 2001. p.262. pp.266-267.
- 張其成 지음, 정창현, 백유상, 장우창, 정우진 공역. 한의학의 원류를 찾다(東方生命花園-易学与中医)-역학과 한의학. 서울. 청홍. 2008. pp.499-506.
- 홍원식 편저. 중국의학사.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4. p.12.
- David Sloan Wilson 저, 김영희, 이민정, 정지영 옮김. 진화론의 유희(Evolution for Everyone). 서울. 북스토리. 2009. p.126. pp.123-124.
- Edward O. Wilson 지음, 최재천, 김길원 옮김. 우리는 지금도 야생을 산다. 서울. 바다출판사. 2005. p.112, 118.
- Faith Popcorn·Adam Hanft 저, 인트렌스 번역원 옮김. 미래생활사전(Dictionary of the Future). 서울. 을유문화사. 2008. pp.484-485.
- Fritjof Capra 저, 김용정, 김동광 옮김. 생명의 그물(The Web of Life). 서울. 범양사. 2001. p.23, 235, 395. pp.21-23, 48-49, 60-61, 238-238, 389-398.
- Hans Georg Gadamer 저, 이유선 옮김. 철학자 가다머 현대의학을 말하다(Uber die
- Verborgtheit der Gesundheit). 서울. 몸과 마음. 2002. p.75.
- Mihaly Csikszentmihalyi 지음, 노혜숙 옮김. 창의성의 즐거움(Creativity). 서울. 북로드. 2004. p.23.
- Paul R. Ehrlich 지음, 전방욱 옮김. 인간의 본성들. 서울. 이마고. 2008. p.67, 69, 71, 462. pp.70-71.
- Randolph M. Nesse, George C. Williams 저, 최재천 옮김. 인간은 왜 병에 걸리는가.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6. p.54, 206, 207, 223.
- Arthur Kleinman. What Is Specific to Western Medicine?. W. F. Bynum, Roy Porter. Companion Encyclopedia of the History of Medicine(Vol. 1). London. Routledge. 1993. p.15-23.
- E. H. Ackerknecht. A Short history of medicin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2. p.61.
- 최승훈. WHO TRM Roles for Cancer Treatment. The 2nd International East-West Symposium. 초록집. 2007.
- Jeffrey D. White. U.S. National Cancer Institute's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CAM) Activities: Emphasis on Traditional Medicine. The 3rd International Symposium of East-West Medicine for Cancer Therapy. 초록집. 2008. pp.3-20.

<기타매체>

- 엄석기, 김세현, 최원철. A History of Research Methodology in Traditional Medical Systems of East Asia -Turning Tradition Into Modern : BC 12C~AD 21C. The 3rd International East-West Symposium of Medicine for Cancer Therapy. 2008. 포스터 발표.
- 최승훈. WHO TRM Roles for Cancer Treatment. The 2nd International East-West Symposium. 초록집. 2007. 구두발표.

3. Jeffrey D. White. U.S. National Cancer Institute's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CAM) Activities: Emphasis on Traditional Medicine. The 3rd International Symposium of East-West Medicine for Cancer Therapy. 초록집. 2008. 11. pp.3-20. 구두발표.
4. 본능.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263112>. 2010.02.15.
5. 본성. <http://krdic.daum.net/dickr/contents.do?offset=A017556600&query1=A017556600#A017556600>. 2010.02.15.
6. 생태학.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11s3017b>. 2010.02.15.
7. 의학.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17a2816a>. 2010.02.15.